2023년 8월 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Market 김지현** 02)3787-3761 jeehyun12@kiwoom.com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미 증시, 신용등급 여진, 유가 강세 등을 소화하며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 일(수) 미국 증시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여진에 따른 금리 상승, 사우디 감산 연장에 유가 강세 등 하방 요인이 상존했으나, 지난 1 일 급락한 테크주에 대한 기술적 매수세 유입, 양호한 실적시즌 진행 등이 이를 완충시키면서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다우 -0.2%, S&P500 -0.3, 나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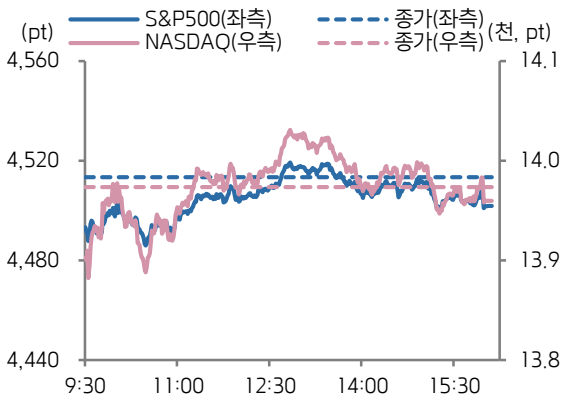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에너지(+1.0%), 경기소비재(+0.3%), 금융(+0.1%) 등이 강세, 유틸리티(-2.3%), 부동산(-1.4%), 산업재(-0.6%) 등이 강세.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0.7%)은 앱스토어 매출 호조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아이폰 판매가 기대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2%대 내외 약세를 기록 중. 아마존(+0.6%)은 북미시장 유통 매출 증가, AWS 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7%대 내외 강세를 기록 중.

미국의 7 월 ISM 서비스업 PMI 는 52.7 로 전월(53.9) 및 컨센(53.0)을 모두 하회. 신규주문(55.0 vs 컨센 55.6), 기업활동(57.1 vs 컨센 57.2) 등 주요 세부항목들이 모두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업황의 둔화를 견인.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7 만건으로 전주(22.1 만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컨센(22.7 만건)에는 부합. 반면 2 분기 단위 노동비용은 1.6%(QoQ)로 전분기(3.3%) 및 컨센(2.6%)을 하회.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목표가 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책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하락 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다만 경기의 추가 둔화는 거의 확실히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 모델 상으로도 금리인상의 효과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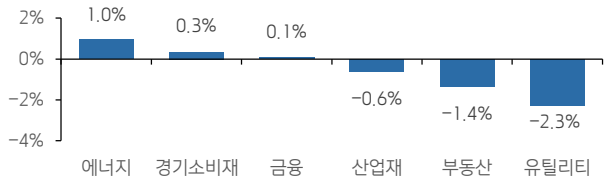
영란은행(BOE)은 8 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5.0%에서 5.25%로 25bp 인상(시장 컨센서스 부합). BOE 측은 6 월 CPI(7.9%YoY)가 예상에 부합했으나, 여전히 2% 물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 동시에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및 음식료 및 핵심 상품 물가 하락으로 5%대 근처까지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 또한 현재 정책 기조는 제약적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인플레 상승 압력의 징후가 발생한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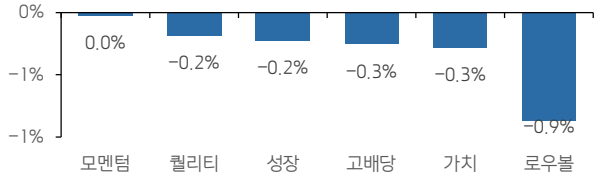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5.39	-0.42%	USD/KRW	1,299.28	+0.09%
코스피 200	341.54	-0.66%	달러 지수	102.48	-0.11%
코스닥	920.32	+1.16%	EUR/USD	1.09	+0%
코스닥 150	1,519.44	+2.72%	USD/CNH	7.18	-0.01%
S&P500	4,501.89	-0.25%	USD/JPY	142.52	-0.04%
NASDAQ	13,959.71	-0.1%	**채권시장**		
다우	35,215.89	-0.19%	국고채 3 년	3.715	+4.5bp
VIX	15.92	-1.06%	국고채 10 년	3.860	+8bp
러셀 2000	1,961.40	-0.28%	미국 국채 2 년	4.881	+0.4bp
필라. 반도체	3,708.08	-0.09%	미국 국채 10 년	4.175	+9.8bp
다우 운송	16,394.75	+0.09%	미국 국채 30 년	4.291	+11.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04.63	-0.73%	WTI	81.55	+2.59%
MSCI 전세계 지수	689.58	-0.35%	브렌트유	85.17	+2.37%
MSCI DM 지수	2,990.13	-0.35%	금	1968.8	-0.31%
MSCI EM 지수	1,015.81	-0.41%	은	23.7	-0.73%
MSCI 한국 ETF	65.45	-0.05%	구리	389.95	+1.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7.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 일정부분 기반영됐을 가능성 2. 아마존과 애플 실적에서 AI 관련 투자 확대 언급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3.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증폭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10 년물 미 국채금리는 4.18%까지 급등하며 작년 11 월 이후 최고치 기록. 현재 부채한도 상향으로 인한 재무부의 3 분기 1 조달러 규모 국채발행계획까지 맞물려 장기물 국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 중.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어느정도 반영되었으며 ISM 서비스업 지수 확장 국면 유지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 제기.

전일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금리는 하락한 점이나, 워렌버핏이 미 국채 매입을 단행했다고 발언한 점 역시 이를 뒷받침. 버크셔는 이미 지난주와 이번주 각각 미 국채 100 억달러치를 매입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미 3 개월, 6 개월 만기 국채 중 어느 것을 100 억달러어치 매입할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하는 등 신용등급 강등이 미 국채의 신뢰성을 손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애플 등 기업 실적을 소화한 이후 시장의 초점은 고용보고서로 이동할 것. 지난 이틀간 나온 고용지표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 6 월 JOLTS 구인이직건수는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으나 해고건수 역시 감소. 7 월 ADP 민간고용은 제조업 부문 고용은 감소했지만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 금일 발표된 7 월 챌린저 감원계획은 YOY -8.2%(전월 25.2%) 감소했으나 AI 여파에 따른 IT 기업의 감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7 만명으로 전주 대비 상승.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열된 고용 수요는 완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서비스 부문 고용을 유지하며 가계지출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ADP 민간고용 임금상승률 역시 YOY 6.2%(전월 6.4%)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근원물가에 긍정적. 7 월 고용보고서 컨센서스는 비농업부문 고용 20.0 만명(전월 20.9 만명), 실업률 3.6%(전월 3.6%), 임금상승률 YOY 4.2%(전월 4.4%)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용 순증은 양호하고 임금상승률의 하락 추세 역시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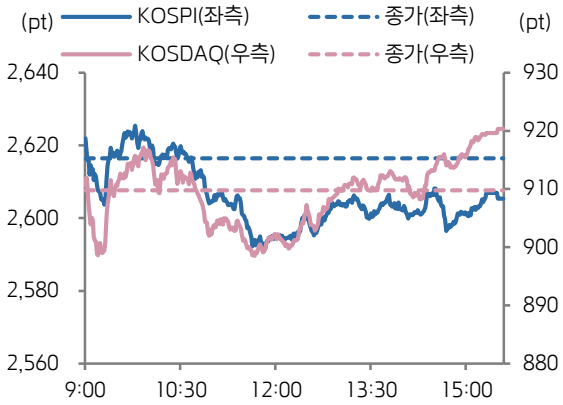
3 일(목) 국내증시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이어지며 외국인이 현선물 1 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혼조세 (KOSPI -0.42%, KOSDAQ +1.16%)

금일에는 전일 미국 반도체 업종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반등, 아마존과 애플 실적발표에서 AI 투자확대 언급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전망.

장마감 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AWS 의 AI 투자 확대 수혜 언급한 아마존(+0.55%)은 시간외에서 10%대 급등 중, 애플(-0.73%)의 경우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으나 컨텐츠 매출의 증가로 이익은 서프라이즈, 추가로 생성형 AI 투자가 진행중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확대 모멘텀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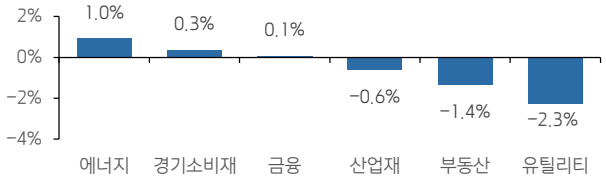
한편 에코프로 등 2 차전지 업종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로 코스닥은 상승전환 마감. 2 차전지 업종의 경우 8 월 10 일 MSCI 지수 변경을 노린 수급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과열은 일부 해소되며 소외 업종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음.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2011 년과는 달리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기울어지며 하단은 제한될 것이고, 이번주 코스피 연고점 경신 이후 상단을 돌파할 재료는 부재한 상황으로 소외 업종 내 대형주 중심의 반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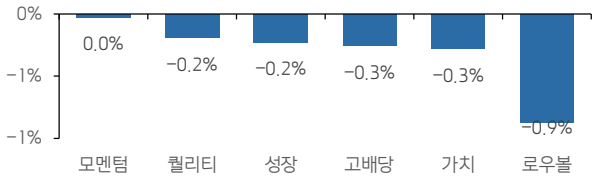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